

## 트랜스젠더 해방: 때가 된 움직임 (5/5)

*Transgender Liberation: A Movement Whose Time Has Come.*  
New York: World View Forum, 1992.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

백소하 옮김

강건영 감수

### 역자 해제

이은용 작가님, 김기홍 선생님과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떴습니다. 이 너머에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폐단을 뿌리 뽑고 새로이 다스리겠다고 큰소리치는 이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가한, 새롭지 않은 살인입니다. 한 번도 뵈지 못한 분들의 죽음에 설친 밤인데 유달리 공허합니다. 개인의 흥미로 옮기기 시작한 글을 이렇게 붙잡고 위안으로 삼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파인버그는 이 글에서 트랜스젠더의 억압과 해방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글의 큰 흐름은 여러 학자의 논의를 빌려, 모계 공동 사회가 점차 해체되며 여성의 배제와 노동의 착취가 전개되는 계급 갈등의 역사를 차분히 훑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배치하여,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가 처한 탄압과 이에 맞선 트랜스젠더의 저항을 가부장적이고 경제적인 계급 지배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살핍니다. 강화되는 성별 이분법뿐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가능해진 도시 노동이라는 조건 역시 패싱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나, 다양한 트랜스젠더 관습 및 실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탄압을 모계 공동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봉건 지주의 공격으로 보는 접근이 그 예시입니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트랜스젠더 공동체가 으레 규정되듯 새롭고 부차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이 나타난 “제도화된 억압과 편견”이 되려 쫓아낸 역사의 일익(一翼)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파인버그가 상상하고 제안하는 트랜스젠더의 혁명적 잠재력은 아무리 좁게 잡더라도 지배 계급의 오래된 유산인 “분할 통치 전술”을 끝낼 힘입니다. 계급과 젠더, 성애의 전선에서 항상 탄압의 대상이자 저항의 주체로 나란히 섰던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절대 당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이 보편타당한 명제가 되어 지배를 안정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이들과 함께 있던 공동전선과 연대의 기억을 더듬는 나비의 날갯짓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올 돌풍은 예컨대 만민의 해방을 위해 맘스와 파이어스톤이 역설한 생산수단/생식수단의 장악과 같이 강렬하고 근본적이겠지요. 지독한 혐오 한복판에서 용기를 내신 분들을 기리며, 이 글이 위로와 자긍심, 그리고 혁명의 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삶

우리가 본 대로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은 언제나 서반구에 존재해왔지만, “패싱”해야 할 필요는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물가에 쓸려 왔다. 많은 여남은 패싱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들의 목소리 일부는 기록되었다.

데보라 샘슨(Deborah Sampson)은 미국 독립 전쟁에서 남성 병사로 패싱하였다. 그는 발각을 피하고자 자신의 허벅지에서 탄환을 뽑아내기도 하였다. 그는 이후 『여성적 검토』(*The Female Review*)라는 회고록을 출간하고 1802년에 순회강연을 다녔다.

샌프란시스코의 첫 멕시코 영사의 딸로 태어난 잭 비 갈랜드(엘비라 무가리에타, Jack Bee Garland/Elvira Mugarrieta)는 1897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남성복으로 가장”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 한 달 뒤 사교적이고 거침없는 갈랜드는 스톡턴 총각 클럽의 명예 회원이 되었다.

1829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루시 앤 롭델(Lucy Ann Lobdell)은 유명한 사냥꾼이자 몇사냥꾼이었다. 그는 어린 딸을 자신의 부모 곁에 남겨두고 “사나이의 세계”에 조셉 롭델 목사(Rev. Joseph Lobdell)로서 나아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정을 설명하였다.

“나는 남자들의 일을 하는 데 익숙했기에, 일을 찾고자 남자들의 옷을 입기로 마음먹었다. 더 열심히 가사를 하고 주에 고작 일 달러를 받을 수도 있고, 남자들의 일을 하고 남자들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여자가 처한 모든 구속을 겪고, 유행의 목소리에 따르고, 죽음의 품에서 죽는 데 복종할 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어머니이다. 나는 내 자식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 그 작은 것이 내가 해야 했던 것처럼 살겠다고 온갖 길로 몸부림치게 둘 수는 없었다.” 롭델은 수용소에서 죽었다.

해리 고어먼(Harry Gorman)은 1903년 버팔로에 입원되기 전까지 20년도 넘게 남자로 살았다. 이 담배를 씹어대는 40살 먹은 철도 요리사는 자신이 여자 옷을 입도록 하는 건 “누가 고용하더라도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어먼은 최소한 10인의 다른 여자가 “남자처럼 입고 완전히 남자 같이 보이며 달리 의심받을 일이 절대 없으며, 이들도 같은 철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집꾼, 역무원, 전철원 등이다. 이들은 서로 만나 인류의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자신들의 전이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적잖이 웃음거리로 삼고는 했다”고 언급하였다. (『게이 미국사』 (*Gay American History*))

코라 앤더슨(Cora Anderson)은 자신의 성별이 밝혀진 뒤 1914년 밀워키에서 “풍기문란”의 혐의로 소환되기 전까지 13년간 랄프 커위니어(Ralph Kerwinieo)로 살았다. “여자의”의 복을 입도록 법원이 명령하자, 남아메리카 인디언인 앤더슨은 명백히 밝혔다. “다가올 세기에 여자는 제 몸의 주인이며 제 녀의 관리인이리라.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여자들에 [관한] 상(像)은 전부 틀릴 것이다. 보살핌을 잘 받은 여자는 기생충이며, 일해야만 하는 여자는 노예이다. 여자의 최저 임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한 해법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어떤 사

람들은 내가 남성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는 오직 조건들, 남자들이 만든 이 세계에서 자라난 조건들에 적대적일 뿐이다.” (『게이 미국사』)

남자로 살기 위한 제임스 맥해리스(애니 리 그랜트, James McHarris/Annie Lee Grant)의 투쟁은 『에보니』의 1954년 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무관하고 사소한 혐의로 미시시피에서 체포된 맥해리스는 시장과 경찰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던 일을 견뎌야 했고, 남자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의상도착은 미국과 유럽의 희곡과 희극에서 계속 번창하였다. 가로질러 젠더화된 공연들은 19세기 미국의 벌레스크와 보드빌에서 중추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블루스 전통은 마 레이니의 “Prove It On Blues”와 베시 잭슨의 “B-D Women”(불대거 여자) 같은 노래에서, 도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내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에 관한 가사를 포함하였다.

트랜스젠더화된 역할은 아직도 텔레비전과 영화, 연극, 문학, 춤과 음악에서 (무엇보다도 대개 “우스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존엄과 공경 속에서 살고 일하려는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향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잔혹하고 흔히 폭력적이다.

## 편견과 싸운 크리스틴 조겐슨

마취의 개발과 호르몬의 상업적 합성은 이번 세기의 비교적 최근 발견이다. 이 비약적 발전은 개인들이 자신의 젠더에 합치하고자 자신의 성별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이래, 이 나라만 해도 수만 명의 성전환자들이 크리스틴 조겐슨(Christine Jorgensen)이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크리스틴 조겐슨이 처음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단연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989년 5월 3일, 암 투병 후 62세의 나이로 숨졌다. 조겐슨은 주류 매체들의 부고란에 조지 조겐슨(George Jorgensen), 크리스틴이 되고자 1950년대 초반에 덴마크로 떠난 브롱크스 태생의 전직 군인이자 사진작가로 기억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성전환이었다.<sup>1)</sup>

이런 기록은 그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둘러싼 “세계적인 야단법석”을 인정하나, 그가 “즉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강연 및 나이트클럽 순회를 다녔으며, 왕족과 유명 인사를 만났고 부자가 되었다”고 첨언한다. (『뉴욕일보』 (New York Daily News), 1989년 5월 4일)

연애 소설처럼 들리지 않나? 이는 조겐슨을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매체들, 그리고

---

1) (역자주)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 최초로 ‘성전환 수술’, 즉 성기 변형 수술을 거친 인물은 도라 리히터(Dora Richter, 1891~?)이다. 이는 1931년 초반, 마그누스 히르쉬펠트의 성과학연구소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조겐슨은 미국에서 최초로 성기 변형 수술을 받았고 당대 미디어에서 이를 “최초의 성전환”이라고 대서특필하였기 때문에, 파인버그는 이를 가리키고 있거나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팬을 좌우하는 지배 권력의 순전한 위선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를 통제하는 그 누구도 크리스틴 조겐슨이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조겐슨의 성전환 소식은 1952년 후반, 미국 사상 정치적 반동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언론으로 흘러들어갔다. 악명 높은 매카시 마녀사냥의 절정으로, 수백 명이 그저 정치적 견해 때문에 법원으로 끌려가 투옥된 때였다. 로젠버그 부부<sup>2)</sup>는 사형수 수감동에 앉아, 싱싱<sup>3)</sup>에서 전기의자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펜타곤의 폭격기가 한국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남태평양에서 수소 폭탄을 실험했다.

짐 크로우 법은 여전히 남부를 지배했다.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은 여전히 운동 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의상도착은 “밀티 아저씨”(“Uncle Miltie”) 별<sup>4)</sup>이 박장대소를 위해 여장을 할 때에만 용인될 수 있었다.

크리스틴 조겐슨의 소식이 뜨자, 온갖 난리가 벌어졌다. 질겁한 뉴스 진행자부터 잔혹한 토크 쇼 호스트까지, 그는 인류에서 추방되었다고 보일 정도로 잔인하게 공격당했다.

중요한 사적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은 적대적인 매체들에 붙들려 고약한 취급을 당했다. 그의 사적인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요하게 쫓겨다녔다. 조겐슨은 죽기 한 해 전 매체들에 전했다. “난 이제 그렇게 알아볼 만하지도 않다. 이제 내가 슈퍼에 가도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정말 좋고 나한테 딱 맞는다.”

“전에 그렇던 것처럼 아프지도 않다.” 그는 첨언한다.

그는 어떻게든 호된 감정적 대가를 치르고 품위와 존엄을 지닌 채 살아남았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조겐슨을 향한 공격은 순응을 강제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역사적으로 이게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조겐슨은 1986년에 언론에 밝혔다. “나는 내가 왜 그리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게 성 혁명의 시작이었고, 나는 어쩌다 방아쇠 구조 중 하나였을 뿐임을 알게 된다.”

---

2) (역자주) Ethel Greenglass Rosenberg(1915~1953), Julius Rosenberg(1918~1953). 미국에서 간첩 모의 혐의로 사형당한 부부이다. 둘은 당시 미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베노나 프로젝트로 해독된 소련 암호에 의하면 이들이 간첩 활동에 관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둘의 사형 집행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이 일었고, 로젠버그 부부의 두 아들, 마이클과 로버트는 줄리어스가 법적으로 간첩 혐의에 유죄인 것을 인정하는 한편, 에델은 이조차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이 검찰과 사법부의 비행으로 만연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사후 복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3) (역자주) Sing Sing Correctional Facility. 뉴욕주 오시닝에 있는 교도소로, 1826년에 개설되었다.

4) (역자주) Milton Berle(1908~2002). 미국의 코미디언. 1948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의 코미디 버라이어티 쇼인 'Texaco Star Theater'의 진행자를 맡아 절정의 인기를 구가해, “밀티 아저씨”, “미스터 텔레비전”(“Mr. Televisio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 잔 다르크에서 스톤월까지

지난 몇 세기에 기술 발전은 남녀 간 직업 분할의 다수를 이제 쓸모없게 하였다. 여성은 노동 인구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가장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차원에서 노동 계급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을 형성하였다.

1952년에 처음 생산된 피임약은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를 사실상 변혁시켰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삶의 모든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굳게 강제된 젠더 경계들 역시 철폐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여전히 분할의 수단으로 편견과 불공정을 사용한다. 이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기념비적 투쟁이 필요했고, 더 큰 투쟁들은 여전히 지평선에 남아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권 운동과 전국적 해방 운동, 그리고 베트남전에 대한 격렬한 저항은 세상을 뒤흔들고 여성 해방 투쟁을 일으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1969년, 뉴욕시 그리니치빌리지의 전투적이고 젊은 게이 의상도착자들이 스톤월 주점을 습격하려던 경찰에 맞선 싸움을 이끌었다. 싸움은 네 밤이나 이어졌다. 스톤월 항쟁은 다시는 벽장 문 뒤에서 침묵하지 않을 현대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을 낳았다.

중세 봉건제의 소작농 봉기에서 20세기 스톤월 항쟁까지, 의상도착자와 다른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수많은 전투적 몸부림에, 개인적 표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건 정치 항쟁의 형태로건 등장하였다.

그러나 거리의 폭력에서 경찰 폭력까지, 직업 차별에서 보건 의료와 주택 공급까지, 트랜스젠더화된 인구에게 생존은 여전히 싸움이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텔레비전과 영화의 잔인한 우스개의 주된 표적이다. 〈싸이코〉, 〈드레스드 킬〉, 〈양들의 침묵〉 같은 영화는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위험한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로 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양들의 침묵〉에서, 일종의 의상도착자이며 성전환자를 흉내 내는 인물이 자기가 쓸 여성의 몸을 바느질하고자 여자들을 죽이고 피부를 벗긴다. 영화는 현실을 뒤집는다. 처참한 살인의 피해자는 사실 의상도착자와 성전환자다.

이러한 논점을 제대로 인식시킨 것은 1992년 봄에 전미 비평가 협회 시상식을 방해한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파리 이즈 버닝〉에 출연한 성전환자 비너스 엑스트라바간자(Venus Xtravaganza)의 실제 피살을 강조하는 전단을 나눠주었다. 엑스트라바간자는 할렘의 드랙 무도회에 관한 이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살해당했다.

〈양들의 침묵〉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 〈파리 이즈 버닝〉은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싸움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제도화된 편견과 억압은 언제나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나타났다. 분할 통치 기술은 노동 계급이 창출한 부의 단물을 노예 소유주, 봉건 지주, 기업 지배 계급이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인종차별주의 및 모든 종류의 편견처럼,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향한 편견은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다. 우리는 서로를 협력자로 보지 못하게 하고자 서로를 상대로 싸움 붙여지고 있다.

연대의 진정한 결속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적과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빛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고, 이를 변혁할 수 있는 계급이다. 우리는 진짜 해방을 이룰 수 있다.

견딜 수 없는 조건에 대항하는 투쟁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반격 운동에서 트랜스젠더화된 여남 및 청년들의 전투적 역할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벌써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Peter Ackroyd, *Dressing Up—Transvestism and Drag: The History of Obsession*, Thames and Hudson, London, 1979.
- ❖ Arthur Evans, *The God of Ecstasy—Sex-Roles and the Madness of Dionyso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8.
- ❖ —, *Witchcraft and the Gay Counterculture*, Fag Rag Books, 1978.
- ❖ Marjorie Garber, *Vested Interests—Cross-Dressing and Cultural Anxiety*,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1992.
- ❖ Gay American Indians, *Living the Spirit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8.
- ❖ David F. Greenberg,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8.
- ❖ Jonathan Katz, *Gay American History*, Harper & Row, New York, 1976.
- ❖ *The Trial of Joan of Arc*, W.S. Scott, ed., Associated Booksellers, 1956. (서문과 각주가 달린, 오를레앙 필사본의 직접 의사록의 번역본)